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물가관계장관회의(12.3일 15:00~16:30) 관계로, 12.3일 16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문신학 석유산업과장(02-2110-4890), 전동욱 사무관(5458)	

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」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

◈ 지난 4.19일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대책(알뜰주유소, 혼합판매, 전자상거래 등)을 지속추진하며, 보완대책도 마련

◈ 알뜰주유소 자립화 기반 마련,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및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추진

□ 지식경제부는 12.3일(월)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'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'을 보고하였음.

□ 금번 보고에서, 지경부는 알뜰주유소, 전자상거래, 혼합판매 3대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,

① 알뜰주유소(11월말, 809개)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외 정유사·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검토하고, 석유공사와 수입사 공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*를 구축하는 한편,

* 공동계약, 차량 확보, 배송시스템 구축 등

- 대리점이 복수의 주유소를 통합하여 알뜰 전환신청할 경우 공동브랜드화와 인센티브를 부여

② 전자상거래 시장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인센티브[1]를 유지하고, 전자상거래 연계 구입자금 대출시스템을 구축[2]

1) 할당관세, 수입부과금 면제,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
2)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 적용, 주관은행 협약 체결('12.12월)

- 인센티브가 소비자가로 반영되도록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·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제한

③ 한편, 지난 9월 제도화된 혼합판매는 운송회사, 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유소의 계약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, 인센티브 마련*

*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,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

- 또한 주유소가 제기한 사례*들을 중심으로 향후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

* 혼합판매 비율 합의 회피, 전량구매계약 위반,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등

붙임: 물가관계장관회의(12.3) 안건

물가관계장관회의

『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』
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

2012. 12. 3.

지 식 경 제 부

1.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및 전망

1. 두바이유 108$/B(11.4주), 국내 휘발유가 1,942원/ℓ(11.4주)

□ 두바이, 싱가폴휘발유 모두 6.4주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급속히 상승하다 9월초부터 보합세 유지

* 두바이유($/B): (6.4주) 91(연중最低) → (9.2주) 114(하반기最高) → (11.4주) 108
* 싱가폴휘발유($/B): (6.4주) 97(연중最低) → (8.3주) 128(하반기最高) → (11.4주) 118

○ 美경기지표 개선과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,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상승·하락요인이 겹치면서 등락 반복

구 분	'10년	'11년	9.3주	9.4주	10.1주	10.2주	10.3주	10.4주	10.5주	11.1주	11.2주	11.3주	11.4주
Dubai($/B)	78	106	110	109	109	110	111	107	107	105	107	109	108
싱가폴휘발유($/B)	86	117	121	122	123	126	123	114	113	113	117	119	118
원/$(한은)	1,157	1,108	1,118	1,119	1,114	1,112	1,108	1,104	1,094	1,090	1,089	1,086	1,085
싱가폴휘발유(원/L)	622	815	853	861	859	879	854	790	778	777	802	815	803
국내휘발유(원/L)	1,710	1,929	2,026	2,023	2,016	2,010	2,006	2,004	1,990	1,970	1,957	1,948	1,942

□ 국내 휘발유가는 싱가폴 휘발유가,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9.3주부터 11주 연속 하락하며 1,900원대 중반에서 약보합세

* 전국(원/L) (7.3주) 1,892(연중最低) → (9.3주) 2,026 → (11.4주) 1,942

2. 향후 전망

□ (두바이유) 세계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정학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'13년은 금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

○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등 주요 국제유가 예측기관은 '13년에 '12년 대비 10% 내외 하락한 전망치 제시

○ 이에 따라, 국내 유가도 금년보다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< 4대 유가 예측기관 전망 >

단위: $/B

기관	전망시기	유종	12년 4/4	12년 평균	13년 평균
세계에너지센터(CGES)	11.19	Brent	110	112	103
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(CERA)	11.28	두바이	106	109	93
美에너지정보청(EIA)	11. 6	WTI	90	95	88
석유산업연구소(PIRA)	11.27	Brent	110	111	109

2. 석유유통대책의 성과평가

◈ 정유4사에 의한 수직계열화와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「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」을 발표(4.19일)

◈ 7개월간 추진하여 온 동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,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·추진할 필요

과제별 성과평가 ① : 알뜰주유소

○ (규모) 현재 809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6.2% 차지(11월말)

- 당초 목표 700개는 8월에 조기 달성, 신규 목표 1,000개 지속 추진중

  * 신청은 하였으나 기존 계약 잔존기간 때문에 개소 대기중인 143개소 포함시 내년초 1,000개소 목표 달성 가능할 전망

구분 \ 기간	총계 (11.23일기준)	월 별 전 환 추 이							
	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월계	–	59	56	50	51	71	50	25	23
누계	803*	483	539	589	640	711	761	786	809

* 자영 260, 고속도로 155, 농협 394개(11.30일 기준)

○ (가격) 전국 평균대비 저렴하게 판매*하고 주변지역 가격인하도 유도

<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 현황('12.2.10~11.29 평균) >

(단위: 원/L)

	알뜰전체	자영알뜰	전국평균가 대비		지역평균가 대비		3Km평균가 대비	
휘발유	1,970.11	1,953.24	1,995.00	△41.76	1,990.76	△37.52	1,988.14	△34.90
경유	1,776.37	1,761.75	1,810.73	△48.98	1,805.74	△43.99	1,802.33	△40.58

* 지역은 알뜰주유소 소재 시군구를 의미, 가격 비교는 자영 알뜰 기준

○ (공급체계) 시행 초기 정유사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, 非정유사 물량을 확대하고 자체 물류망과 금융 지원체계도 확보

- 국내 제5공급사인 삼성토탈과 저렴한 수입물량을 성공적으로 확보,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공급(11.7일~)

  * 자체 운송 시스템으로 약 56만L/일(국내 일일 소비량의 약 2%) 안정적 판매중

  * 물량비중(휘발유): 그간 정유사 100% → (11월) 정유사 65%, 삼성토탈 23%, 수입 12% → (12월말) 정유사 52%, 삼성토탈 30%,수입 18%

< 최근 정유사 공급가와 알뜰 공급가 비교 >

구 분	정유사 주유소 공급가(A)	알뜰 정유사 물량		알뜰 非정유사(삼성토탈+수입) 물량	
		석유공사 공급가격(B)	가격차이[1] (A-B)	석유공사 매도가격(C)	가격차이[2] (A-C)
11월 2주	1,837.15	1,813.80	23.25	1,776.40	60.75
11월 3주	1,859.60	1,825.40	34.20	1,788.00	71,60
11월 4주	1,862.25	1,828.00	34.25	1,796.00	66.25
평 균	**1,853.00**	**1,822.40**	**30.60**	**1,786.80**	**66.20**

1) 정유사 공동구매에 따른 가격 인하

2) 전자상거래 인센티브(약 15원) 및 추가 할인(40~60원)에 따른 가격 인하

- 알뜰주유소 영업의 최대 애로요인이었던 화물 복지카드 및 우대 법인카드 출시 완료, 개인제휴카드는 상품개발 완료 후 금감원 협의중

과제별 성과평가 ② : 전자상거래

○ (거래량) 전자상거래 개장(3.30)초 거래가 저조했으나, 인센티브* 시행(7.1) 이후 월평균 거래량 35배 증가 등 초기 안착에 성공

* 할당관세, 수입부과금 면제, BD 혼합면제 등 경유 53원/L, 휘발유 43원/L

○ (거래가격) 수입 경유의 경우, 정유사 공급가대비 60~103원/L 낮게 형성되어 인센티브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(7~10월간)

- 전자상거래 물량 구매 주유소가 전체 인센티브 중 상당부분(50~85%)*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인하효과도 확인

  * 7~9월간 직접매입 주유소 85.5%,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 49.4% (전자상거래 물량비중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53원/L 중 반영비율 산정)

과제별 성과평가 ③ : 혼합판매

○ (제도개선) 정유사와 협의를 거쳐 혼합판매 주요 쟁점*에 대해 합의(8.1일)하고 시장에서 시행 가능함을 발표(9.6일)

* 혼합판매 표시, 물량 확인, 제조물 책임, 인센티브 차등, 유·무채권 주유소

○ (홍보) 그간 정유사 자체 교육과 전국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*를 통한 주유소 단계 홍보 및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

* 지경부 및 주유소협회 주관, 대구·부산(10.19일), 대전(11.7일)

○ (실적) 주유소간 눈치보기와 정유사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적이 없는 상황

- 주유소는 초기 혼합판매 시행에 따른 정유사 협상 부담과 관행적 혼합판매(약 15% 추정) 양성화 우려로 소극적

* 다만, 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계약 협상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사례는 다수 관측

- 정유사는 실적 유지 차원에서 혼합판매 신규계약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, 전량구매계약下의 음성적·관행적 혼합판매를 묵인

종합 성과 평가

1 유통구조 경쟁촉진

○ 알뜰주유소가 6%를 초과하고 경유 수입물량이 10%에 이르면서, 정유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

⇨ 지난 5년간 ±0.5% 내외로 움직이던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화

< 정유4사 시장점유율 추이 >

(경질유 기준)	SK	GS	현대	S-Oil	계
'11년 평균(%)	34.8	27.3	20.4	15.2	97.7
'12.9월(%)	31.6(3.2↓)	25.6(1.7↓)	20.4(-)	15.6(0.4↑)	93.2(4.5↓)
'12.10월(%)	31.8(3.0↓)	23.7(3.6↓)	21.7(1.3↑)	16.8(1.6↑)	93.9(3.8↓)

* 증감수치는 11년 평균과 비교

2 가격 경쟁 촉진 및 안정 효과

○ 그간 정유사 공동구매를 통하여 알뜰주유소에 싸게 공급하였으나, 정유사의 가격조정시 일반 주유소와 가격격차가 줄어드는 한계 노정

- 다만, 석유공사가 최근 저렴한 삼성토탈 및 수입 물량을 공급하면서, 가격경쟁이 다시 살아나고 정유사가 공급가를 인하·조정하는 현상 관측

- 석유공사의 공세적 가격 책정으로, 알뜰의 가격경쟁력도 회복*

(휘발유, 단위:원/L)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1.30
자영알뜰가격	1,922.96	1,856.61	1,935.07	1,988.06	1,964.89	1,912.11	1895.86
알뜰지역가격	1,965.02	1,897.27	1,966.62	2,020.99	2,001.82	1,953.38	1942.08
차 이	42.06	40.66	31.55	32.93	36.94	41.26	46.22

○ 석유유통시장이 그간의 서비스·광고 위주 경쟁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, 소비자 인식이나 정유사 영업전략도 바뀌고 있는 상황

* 주유소 선택이유: 가격(45.6%), 거리(24.2%), 마일리지(10.4%) ('12.5월, 한국 소비자원)
→ 가격(56.4%), 위치(21.3%), 단골(7.2%) ('12.11월, 한국사회여론연구소)

* 셀프 주유소: ('11.1월) 352개(2.6%) → ('12.10월) 930개(7.2%)
평균 가격(11.26일): 일반주유소 1947.9원, 셀프주유소 1906.6원(△41.3원)

3 시장의 기준가격 제시 및 가격 선도

○ 그간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*에서 탈피, 전자상거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동

* 석유가격에 대한 불만이유(복수응답): 불투명한 원가구조(54.2%), 높은 세금(52.0%), 가파른 가격상승(43.2%), 가격변동의 불안정성(38.5%) ('12.11월, 한국사회여론연구소)

- 석유공사 공급가 및 전자상거래 결정價가 유통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인식되면서, 주유소의 對정유사 협상력 제고에도 기여

* (例示1) 대리점들이 현물가격으로 석유공사 공급가 - α를 제시
* (例示2) 전자상거래 가격이 정유사 주말/월말가격의 기준으로 작용

4 소비자 권리 강화

○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상세정보*를 오피넷뿐만 아니라,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서도 공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

* 상표별·지역별 석유제품의 주유소 가격정보, 정유사 평균공급가 등

- 소시모과 연계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 공개를 지속하고, 특히 전자상거래 거래 주유소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강화

* 소시모 주요 활동: (매일) 서울 휘발유 가격 가장 비싼 주유소와 가장 싼 주유소 발표, (매주) 휘발유·경유 국내 가격 분석, (매달) 석유시장분석보고서 발표

3. 향후 계획

◈ 그간 석유유통대책 추진과정에서 정유사-주유소-언론-소비자 등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또는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계속 문제 제기

◈ 석유제품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**정부의 당연한 책무**

⇨ 그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, 관련 대책을 **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천명할 필요**

알 뜰 주 유 소

1 자립화 기반 마련

○ 독자적 공급선 확보를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2차 수입 입찰을 추진하되, 특히 해외 정유사·트레이딩사 등과 장기 계약도 검토

○ 석유공사-수입사와 합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 체계 구축

* 현재 수입물량은 울산, 삼성토탈 물량은 석유공사 비축기지간 스와핑 후 각 기지에서 출고중

○ 대리점이 복수의 주유소를 통합하여 알뜰 신청시 공동 브랜드화 추진

* (例示) 대리점이 20개 이상의 주유소를 모아서 신청한 경우, 품질관리·계약 준수 등 관련의무 계약에 따른 공동 브랜드 부여

2 대도시 중심 확산 노력 지속

○ 서울등 대도시 지역 확산을 위하여 非정유사 물량 위주로 영업하는 석유공사 직영 임대 주유소 운영 방안 검토

* 과거 정유사 의존시와 달리, 자체 물량 조달에 따른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

○ 서울지역 추가 인센티브(정액 5천만원)는 '13년에도 지속 지원

* 서울지원 지원금은 1년 이내 시설자금등에 사용한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

3 홍보 등 마케팅 강화

○ 제휴카드 출시를 계기로 카드사와 공동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추진(12월중)

* 신문 광고, 라디오 광고, 무가지, 전단지, 포스터, 현수막, 신문기고 등

전 자 상 거 래

1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지속 및 모니터링 강화

○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형성 및 정착에 필수적인 인센티브는 당분간 유지

- 할당관세(3%→0%)[1] 및 바이오디젤 혼합의무(2%) 면제[2] 연장

1) 휘발유 70만B, 경유 300만B('13.1~6) 2) '12년 일몰 → '13년 일몰

○ 분기1회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내역 및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·주유소는 단계적 참여제한

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보완

○ 금융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연계 구입자금 대출 시스템 구축

-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,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

- 주관 은행 협약체결(12월~) 및 공동 시스템 구축 작업(1월~)



혼 합 판 매

1 초기 혼합판매 사례 유도

○ 운송회사, 대형마트 등 對정유사 협상이 가능한 대기업 소유·운영 주유소를 상대로 혼합판매 계약 변경 유도

○ 주유소가 혼합판매 선택시 유리한 인센티브 마련, 제공

(例示)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,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

2 현장 의견 수렴 및 점검

○ 전국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시 제기된 사례*중심으로 향후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

* 전량구매계약 강요 및 혼합판매 비율 합의 회피 등